



주간통일정세 2007-15(2007.12.17~12.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7-1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해군 제189군부대 현지 지도(12/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은 '오중흥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북한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고 "전투력 강화의 기본 담보는 훈련을 잘 하는 것"임을 강조
 -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현지지도는 제1159군부대, 제169군부대 발전소, 공군 제378부대, 제1596부대 산하 목화농장과 가공공장, 건재공장 등 생산시설, 제255군부대 지휘부 방문 등으로 이루어졌음

나. 정치관련

- **김정숙 90회생일 기념행사 확산(12/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1917~1949)의 90회 생일(12.24)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 공연과 문화 행사등이 개최되고 있음
 - 20일 당.군.청 결의대회(고향 함경북도 회령), '충성의 해말은 영원 하리' 제하의 인민군 협주단 종합공연, 여성합창 '김정숙 어머니님 우리 어머니님' 등의 음악 공연 개최

다. 사회 관련

- **교사들의 실력 향상 강조(12/17, 노동신문)**
 - "실력의 높어야말로 교육자의 진정한 높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면에서 "좋은 성과" 거둔 평양보통강 제1중학교 사레가 소개됨.
 - "교원들의 높은 실력은 그대로 학생들의 높은 실력으로 "나타나 이곳 학생들이 각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밝힘.
- **김정일, 이인모 반신상 건립 지시(12/21, 조선신보)**
 - 최근 사망한 북송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의 반신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내년 평양 통일거리에 건립된다고 보도.
- **외국 '원조'에 대한 종속성 부각(12/18, 노동신문)**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외원조는 본질적으로 "국가적 형식을 띤 독점 자본의 해외침투이며 경제적 침략과 예속의 도구"이며 이들 국가들의 "신 식민주의 책동"임을 부각 선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평양서 북핵 대북설비지원 협의(12/23, 연합)

- 남북한과 중국은 12월 25~27일 평양에서 ‘신고. 불능화’ 이행 대가로 북측에 제공할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 자재 제공 방안을 협의
-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12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비공식 수석대표 회동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설비.자재 등 비(非) 중유지원 부분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23일 외교통상부 발표)

나. 북·미 관계

● 세계 핵확산에 대한 미일 책임 비판 (12/18, 민주조선)

- ‘핵전파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민주조선의 논평에서 국제적인 핵확산 노력이 실패하는 것은 “특정국가들의 2중 기준 정책 때문”이므로 2중기준을 없애는 것이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

다. 북·일 관계

● 6자회담의 일본 자격 부정 강조(12/18, 조선중앙통신)

- ‘가소로운 휘방꾼’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일본 국회는 조선(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일. 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이 2.13합의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반 사실은 일본이 6자회담 참가의 자격은 물론이고 명분도 상실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고 강조

라. 북·중 관계

● 北-中, 수풍댐 보강공사 공법·시기 잠정 합의 (12/20, 동북전력공사 웹사이트)

- 5~12일 평양에서 북한 전력공업성 대표단과 수풍댐 보강공사를 위한 제1차 설계 연락회의에서 북중 양측이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풍댐 보강공사의 공법과 시기 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벨로루시, 외교·공무 無비자 협정 서명(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벨로루시간 ‘외교 및 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무사증제 협



정'이 지난 1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 보도

3. 대남정세: 남북교류협력

- **내년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12/22, 연합)**
 -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개성공단 통근열차가 내년부터 운행

- **남북,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합의(12/22, 연합)**
 - 남북은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에 의거 20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내용을 담은 4개조 10개항의 합의서 채택
 - ※ 남과 북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生物地)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내년 4월 개성에서 하기로 하는 한편 산림녹화 협력사업을 위해 사리원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내년 3월 실시하기로 함.

- **개성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신청사 준공(12/21, 연합)**
 - 민간기업들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의 새 청사가 21일 개성공단에서 준공,
 - 새 청사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회담장과 IT기술협의실, 봉제기술협의실, 면담실, 상품전시관, 교육관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서해특별지대추진위 28~29일 개성 개최(12/18, 연합)**
 -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지대) 조성을 논의할 서해지대추진위원회(이하 서해추진위) 1차 회의가 28~29일 개성에서 개최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핵전문가들, 북핵 연료봉 제거 개시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불능화의 획기적인 조치인 영변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근처의 수조로 옮기는 작업이 12월 제3주 후반 개시됐으며,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10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이전에는 핵연료봉 제거가 완료되기 힘들 전망이다.

나. 미·북 관계

● 미 의회, 대북 에너지 지원예산 우선 배정(12/19)

- 미 의회가 북핵 6자회담 관련,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으로 5천300만 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음.
- 미 의회 상·하원이 가결 처리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법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당초 행정부가 요구한 대북 에너지지원 예산 1억6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5천300만 달러를 우선 책정했음.
- 이 같은 규모는 국제시장에서 중유 10만 배럴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성 김, 방북(12/19~23)

-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이 방북하여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집중 협의하였음.
- 그는 북한 외무성 및 원자력총국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교착점들이 있다는 보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 라이스 “북핵 중대국면”(12/20)

- 캐나다를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고비를 맞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지금 매우 중대한 국면(crucial step)에 처해 있으며 북한이 정확한 핵신고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핵프로그램과 확산 활동, 핵무기 신고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10·3 합의’의 목표대로 연내에 전면 핵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 라이스, 북 우라늄 핵프로그램 철저신고 촉구(12/21)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오랜 우려 대상인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라이스 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 튜브에서 농축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12/21)에 대해 ‘정보 사항’이라며 언급하지 않은 채, 이 같이 촉구했음.
- 북한은 러시아에서 알루미늄 튜브를 대량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핵농축용이 아니라며 미국측에 알루미늄 튜브 샘플을 건넸음.

다. 중·북 관계

● 북·중, 수풍댐 보강공사 공법·시기 잠정 합의

- 왕광후이(王廣輝) 중국 「동북전력공사」 부총경리(부사장)가 이끄는 중국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북한 전력공업성 대표단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풍댐(1943 완공) 보강공사를 위한 제1차 설계연락회의(12/5~12)를 갖고 공사범위, 공법, 시기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달성했음.

● 우다웨이, 방북(12/17~19)

-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북핵 불능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 우 부부장은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고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북핵 6자 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6자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중, 자국 관광객 방북절차 간소화

- 중국은 자국민들이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거액의 원정도박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통행증 발급을 중단(2005.9)한 뒤 관광 목적 등으로 북한으로 출국할 경우 관할 시정부 외사처에서 출국 허가를 받고 반드시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공안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공안부장 주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변경무역과 변경관광에 종사하는 공민과 관광객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변경지역 공안기구에 통행증을 신청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음(12/20).
- 새 규정에 따라 단둥(丹東)과 훈춘(渾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이나 관광에 종사하는 업자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통행증(일명 도강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방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됨.



라. 러·북 관계

● 러, 나진에 화물터미널 건설 발표(12/18)

- 「러시아 철도공사」는 북한 나진항에 연간 32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화물터미널을 건설, 나진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무역 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는 2001년 북·러 정상회담 합의의 일환이며, 공사에는 약 1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국 대선 관계

● 주변 4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축하 메시지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12/20)를 걸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한·미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이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2008/2/25)한 뒤 가까운 시일내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음.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12/20)을 보내 축하하고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했음.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이 당선자는 미국, 일본과 관계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고 싶다”고 밝혔음(12/20).
- 이바첸초프 러시아대사는 이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는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대통령 당선자 임기 중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중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초대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방러 초청의사를 전했다(12/21).

나. 일본 관계

● 일, 내년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실험

-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환으로 금년 3월 도입을 시작한 지상배치형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3(PAC3)의 첫 공중요격 실험을 내년 가을 미국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보도(12/21)했음.
- 일본은 PAC3을 내년 3월까지 사이타마(埼玉)와 지바(千葉) 등 수도권 지역에 4세트를 배치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6세트를 실전 배치할 예정임.

다. 한·미 관계

● 미 대표단, 1월초 방한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



에 따라 북핵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국간 현안 조율이 시급해졌다고 판단, 대표단을 내년 1월초 한국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2/20).

- 방한 대표단은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중간 간부급 실무 대표들로 구성되며 부차관보급이 단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음.

라. 중·일 관계

● 후쿠다 일총리, 중국 방문(12/27)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방중(12/27~30),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와 지구온난화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임.
- 중국과 일본이 합의했던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